

뉴멕시코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1 / 2 월호
2023



CONTENTS

Cover Story : 리스트라	: 1
한인회: 교민여러분께 윤태자	: 2
2023년 상반기 순회영사업무	: 3
한국학교: 뉴멕시코 학부모 및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신	: 4
한국학교 봄학기 등록안내	: 5
KOWIN: 한아이를 키울려면	
온마율이 필요하다 박광종	: 6
지난 두달 국내외 주요뉴스	7- 9
칼럼: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김기천	: 10
존웨슬리 생애의 원년 나정용	: 11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임동섭	: 13
수필: 우리 모두의 일 이정길	: 14
수필: 프랭크 매코트의	
신천지 나정자	: 15
왜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하는가? 신경일	: 18
영어이야기 24 숫자 이상목	: 19
기행문: 한국방문 후기 김기천	: 21
기행문: 뉴욕 여행 송은숙	: 22
다큐: 명예훈장 수상자 미야무라	
히로시의 살아 있는 역사	: 24
교계소식: 새해 신년사 윤성열	: 26
주일 대표 기도 염희식	: 27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	
보내면서 이동미	: 28
뉴멕시코 한인교회 안내	: 29

COVER STORY 리스트라

리스트라(Ristra)는 스페인어로서 고추나 마늘 같은 채소를 묶어서 말리는 다발을 의미합니다. 뉴멕시코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붉은 칠리(고추) 리스트라는 일반적으로 어도비 집 대문이나 창문 옆에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되며 방문자를 환영하는 의미가 있고 건강과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번호 표지의 사진은 사진작가 Klaus Priebe 씨의 작품으로 광야의 소리 독자를 위해 사용허락을 해주신 “Ristra Blues”란 제목의 사진입니다. 푸른색갈의 대문과 창문, 어도비 벽 색깔에 어울린 고추 다발을 멋진 구도에 담았습니다. 이 작품은 페이스북 독자로부터 4천3백 개의 ‘좋아요’를 두주 기간 사이에 받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래에 사진 작가의 웹사이트를 소개합니다.

Klauspriebephotography.bigcartel.com

한인회 소식

교민 여러분께

윤태자

제20대 뉴멕시코
한인회 회장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하
시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에 새 회장님과 함께 출발할 20
대 한인회를 생각하며 작별인사를 드
렸는데 2년을 연임하게 되어 다시금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새로운 임원
진과 이사진이 합류 할것이며 임기 2
년간 새로운 각오로 임원들과 이사들
은 한인회에 봉사할것 입니다. 앞으로
도 한인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월과 12월의 한인회 소식입니
다.

11월 10일부터 배추를 운반하고 다듬
고 절이고 하면서 19일에 있을 김치축

제 준비에 들어 갔습니다. 한국학교 선
생님, 학부모, KOWIN 멤버, 임원, 이
사진, 교민들이 함께 수고하고 준비한
김치축제는 당일엔 김치, 떡볶이, 오뎅,
호떡등이 완판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김치축제에는 김두남, 박연복, 김영신,
형재영, 이희정, 김태원, 위점덕, 카톨
릭 공동체, 알버커키 감리교회에서 현
금과 물품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12월 4일 정기총회에서는 제 20대 뉴
멕시코 한인회장으로 출마하신 분이
안계셔서 제가 연임하는것을 인준 받
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회때 김진옥 부회장님께서 600불 이
상의 잡곡과 현미를 후원해 주셔서 참
석하신 교민들께 선물 드렸습니다.

12월 18일에는 망년회를 하였고 식사
후 노래로 여흥을 즐겼습니다.

12월 22일에는 6.25 참전 용사들과 임
원진, 정관위원들 그리고 급하게 출
장오신 세분 영사님들과 M'tucci's
Twenty-Five 이탈리아 식당에서 크리
스마스 파티를 하였습니다. 30여명이
화기에애하게 파티를 즐겼고 한인회에
서 준비한 선물과 LA 총영사관에서 준
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한인회에서
는 앞으로도 자주 참전 용사분들을 뵈
도록 하겠고 형식이 아닌 진정한 배려



김치축제 전시장 텐트

와 감사함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회 소식입니다. 11월에는 장로 교회에서 식사후원을 해주셨고 12월에는 한순미씨가 식사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에서 250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교민 여러분, 앞으로도 뉴멕시코 한인회가 더 나은 방향을 향해 성장할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대 뉴멕시코 한인회장
윤태자드림

6.25 참전 용사 초대



김치축제날 태권도시범



2023 년 상반기 순회영사 업무 안내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한국 영사 순회 업무를 위해 오는 3 월에 뉴 멕시코 한인회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023 년 3 월 21 일 화요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뉴 멕시코 한인회관 @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순회영사 방문 전 준비서류 및 민원관련 문의:

순회영사 방문 시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접속, 민원 종류별로 준비 서류 및 정확한 민원수수료(반드시 현금이나 Money Order 로 준비)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

상기 홈페이지 안내사항에도 불구하고 세부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총영사관 순회영사실 대표전화 (213) 385-9300, 내선 221-222 또는 당관 민원실 전용 이메일 (consul-la@mof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멕시코주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한국학교 소식

뉴멕시코 학부모및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여느 해처럼 어김없이 찾아오는 토끼의 해인 새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하고 씩씩하게 맞이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언어로는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시시각각 변하는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 양육, 건강관리, 재테크등 최선을 다해 맡은 일에 온 힘을 쏟아 부으시는 한인 여러분들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한국학교는 의욕이 넘치는 선생님들과 헌신적인 고등학생 자원 봉사자들의 많은 노력과 학부모들의 크나큰 관심과 더불어 우리의 후세들에게 사랑을 듬뿍 담아 한국학교를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우리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학교로 서서히 탈바꿈 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입한 전자칠판은 그 기능이 다양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흥미진진한 수업을 제공할 것이고 한국학교 로고가 새겨진 태권도복을 입고 수련하는 학생들의 면면에

서는 발랄함과 생기가 넘쳤습니다.

아직도 한국학교에 자녀를 보내기를 망설이는 학부모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뉴멕시코 한국학교는 가정환경이나 기타등등의 여건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유전자가 있는 모든 아동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차별없이 교육합니다. 다른 교육들과 마찬가지로 특히 언어교육은 어릴수록 습득도 빠르고 응용력이나 기억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두가지 언어를 학습하는 어린이들은 제3의 외국어를 공부할때도 탁월

이수신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



한 학습능력을 보여줍니다. 한국 기업들의 첨단산업들이 많은 나라로 진출하고 한류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한글을 잘 배워서 전세계를 누비면서 한인이라는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를 선도하는 훌륭한 한민족의 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전자칠판 사용법 데모 중



연극 활동 시간

뉴멕시코 한국학교 2023 봄학기 한글반 개강 및 등록안내

한국학교는 1월21토요일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7일 부터 봄학기 수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봄학기는 지난 가을학과 마찬가지로 한글수업과 특별활동, 태권도수업이 제공됩니다. 훌륭한 음악 선생님이나 미술 선생님이 확보되면 시간표에 음악, 미술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실력을 발휘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먼 훗날을 내다보고 사람을 기르고 교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해줍니다. 미국에서 성장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한글 학습은 그 효과가 사회에 진출할 시기가 되면 나타납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는 백년이 아니라 불과 10, 20년이 지나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한글을 가르쳐서 한국말을 잘 못해서 부끄러워 하는 한인이 없도록 뉴멕시코 한국학교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해동안 수고해주신 교사진들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한인공동체와 한국학교를 위해 봉사해주신 한인회및 이사회 임원, 한국학교 발전을 위해 후원해 주신 모든분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는 한인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뉴멕시코 한국학교장 이수진

봄학기 한글반 개강을 알려드립니다. 뉴 멕시코 한국학교는 훌륭한 선생님들과 열정적인 고등학생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봄학기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나는 한인 학생들에게 한글학습의 혜택과 역사와 문화를 익히게 하고 한민족이라는 긍지를 심어주고 정체성을 확립시키며 한인 학생들간의 유대감을 향상시키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려고 합니다.

- 수업료: \$165.00 (둘째 \$150.00, 셋째부터는 무료)
- 등록비: \$30.00 (초기등록시 면제2023년1월9일까지 등록시)
- 교재 배송비 권당 \$10.00
- 수업요일 및 시간: 유아및 초등학생반: 매주 토요일 오전 9:10-12:30 태권도 시간표는 추후통지

중고등학생반: 추후 통지

성인반 1 (초급, 중급, 고급반) 매주 금요일 오

후 5:30-7:30

성인반 2 (초급, 중급, 고급반) 매주 토요일 오

후 3:30-5:30

- 한 학급당 최소인원이 5명입니다. (5명미만일 경우 통합 또는 취소됨)
- 수업기간: 1월 27일 부터 5월1 3일 (APS 봄방학주는 수업없음)
- 학교위치 및 주소: 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문의 및 상담: 이메일: nmkoreanlanguage@gmail.com

학교전화:505-271-1777

Web: kaanm.com (홈페이지 상단 한국학교)

- 오리엔테이션 및 학급편성: 1월21일 토요일 (출석필수)
오전 10:00-10:50 (성인반)
오전 11:00-11:50 (유아, 초등, 중고등반)
- 수업료 및 등록비 납부방법: 등록신청서 작성후 체크나 머니오더 동봉 후 우편으로 납부 (pay to the order of: KANM, 책 왼쪽하단에 학생이름 기재요망)
등록신청서는 학교에서 배부 혹은 KANM.com 한국학교 에서 프린트 가능.
- 환불없음, 단 학급취소시 전액환불
- 수업은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한국학교는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와 주정부 보건국의 지침을 따릅니다.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한 아이를 키울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박광종

뉴멕시코 KOWIN 지부장
하이랜드대학교수



아프리카속담에 “한 아이를 키울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이제는 너무나 개인주의로 바뀌어 가는 요즘 시대에 부모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코윈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알아가는 기회를 가지고자 했다.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가뭄에 타지 않아 말라 죽는 일이 없듯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 차세대들 역시 자신의 뿌리를 아는 것은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자 Joseph Devito는 자부심이 중요한 이유를 성공이 성공을 낳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안그래도 아시안 증오 범죄와 인종차별에 움츠려 있는 우리 차세대들이 살벌한 경쟁과 차별을 이겨 내기가 쉽지 않다. 이번 코윈캠프는 아시안이라 겪는 차별과 Bullying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Albuquerque Police Department Ambassador, Sgt. Rico가 본인 자신이 나바호 인디안으로 겪었던 경험을 나누고 자신의 뿌리를 알고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주었다.

코윈 캠프 이틀째 되는 날에는 감리교회 이경화장로님의 어머니, 최순애 여사가 1925년 11월 당시 12살때 “어린이” 잡지에 입선작으로 뽑힌 동시 “오빠생각”을 5년뒤 작곡자 박태준씨가 노래로 만들어 국민동요가 된 곡을 배웠다. 이 곡은 소년운동등으로 일제사

찰에 쫓겨 서울로 올라간 오빠 최영주를 그리며 쓴 동시로 당시 일제시대의 상황과 곡에 나온 뚝뚝새와 빠꼭새는 여름을 대표하고 기러기와 귀뚜라미는 가을을 대표하며 그 많은 시간동안 오빠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동시로 잘 표현한 점을 설명할 수 있었다.

아쉽게도 환절기 감기때문에 참석치 못한 5명의 학생을 빼놓고 21명의 학생들은 경단, 물김치, 깍두기, 고추장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들 처음 만들어 보는 한국음식이었지만 너무 진지하고 즐거운 모습에 코윈캠프를 힘들게 준비한 보람이 있었다.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도 한국어로 배워보고 경단을 익반죽을 해서 만드는 것과 새알까지 동그랗게 만들고 색색깔로 입히는 것까지 어머니들조차 처음 해본다는 것들을 아이들은 찬찬히 만

들어갔다. 피자과 스파게티가 더 익숙한 아이들이 만든 경단을 오손도손 먹는 모습이 너무나 귀중했다. 박향옥선생님께서 차세대에게 고추장만들기를 가르쳐주시는 덕분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고추장을 만들었는지 알아보고 만들어 보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고춧가루를 체에 거르고 메주가루도 곱게 체에 거르는 모습, 고추장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 순서 하나하나 귀 기울이는 모습들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자신들의 뿌리를 알고 깊게 내리는데 한발짝씩 가까이 가지 않았나 싶다.

우리 차세대들이 뿌리깊은 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코윈캠프순서에 도움을 주신 박향옥선생님, 코윈회원님들과 캠프에 참석한 학생들 어머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다.



NEWS

지난 두달(11/12월) 국내외 주요 뉴스

11월 11일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침략 이후 8개월여 만에 남부 전선의 요충지 헤르손 시(市)를 탈환했다. 헤르손(Kherson)은 지난 2월 말 러시아가 처음 점령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이자, 유일한 주도(州都)였다. 헤르손 시민 수천 명은 이날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시내로 진입하는 우크라이나군을 반겼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공월드컵 이후 12년 만이다. 그러나 12월5일에 열린 16강전에서 랭킹 1위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1대4로 패배하여 8강 진출은 좌절되었다. 아르헨티나는 1986 멕시코월드컵 이후 36년 만에 월드컵 정상을 차지했다. '에이스' 메시(36, 아르헨티나)는 개인 통산 5번째 월드컵 출전만에 드디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광장에 몰려든 응원 인파.

있는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거행되었으며 Sunset Memorial 공동묘지에 군의 예식절차에 따라 안장됐다. 장례식에는 다른 6명의 명예훈장 수상자를 포함하여 수백 명의 조문객이 참석했다.



11월 30일

중국 전 주석 장쩌민 사망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중국공산당 주석이었던 (1993년 ~ 2003년) 장쩌민 (江澤民)이 11월 30일 향년 96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1989년 유혈 진압으로 끝난 톈안먼(천안문) 시위 이후 국가 지도자가 된 장쩌민 전 주석은 10년간 중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이끌었던 정치인이었다.



11월 15일

UN 인구보고서

유엔은 세계 인구가 80억 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11월 20일 ~ 12월 18일

FIFA 월드컵(World Cup)

2022년 FIFA 월드컵(World Cup)이 카타르(Qatar)에서 개최되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12월3일 포르투갈을 상대로 H조 조별리그 3차전을 치러 2-1 역전승을 거뒀다. 한국은 이날 승리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다. 2010년 남아



11월 29일

뉴멕시코, 한국전 참전/명예훈장 수여자 미야무라 사망

한국전 참전용사이며 명예훈장 수여자인 뉴멕시코 갤럽 출신 히로시 미야무라가 11월 29일 사망했다. 미셸 루한 그리섬 뉴멕시코 주지사는 고(故) 히로시 "허시" 미야무라 씨를 애도하기 위해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뉴멕시코 주에서 게양되는 모든 국기는 반기(半旗:half-staff)로 게양할 것을 명령했다. 고인은 1925년 뉴멕시코 갤럽에서 태어나 한국 전쟁에 참전했을 때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보여준 공로를 인정받아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의회 명예 훈장을 받았다. 고 미야무라의 장례식은 12월 10일 뉴멕시코 갤럽에



12월7일

2022년 올해의 인물

미국의 주간 잡지 '타임(Time)'이 선정하여 발표하는 금년 한 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로 우크라이나 현직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선정 발표했다.



지난 두달(11/12월) 국내외 주요 뉴스 (계속)

12월 6일

폴란드, 한국 K2전차 첫 입하 환영식

폴란드의 항구도시 그드니아(Gdynia)에서 'K2 전차 입하 환영식'이 개최됐다.

이날 입하된 K2 전차는 지난 10월 현대로템 경남 창원공장에서 초도 출고



된 총 10대 물량으로 출고식이 진행된 지 약 50일 만에 폴란드에 도착했다.

안제이 세바스티안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부총리 겸 국방장관, 국영방산그룹(PGZ) 회장 등 폴란드 정관계 인사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한국 측 민관 인사 다수가 참석했다.

지난 7월에 바르샤바는 189대의 K2 전차와 212대의 K9 자주포를 구입하기로 한국과 58억 달러 규모의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것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무기 거래이다. 폴란드는 FA-50 경전투기 48대와 K239 천무로켓포 288대도 한국으로 부터 구입할 것이다.

12월 11일

달 왕복 프로그램

미국 항공 우주국(NASA)은 아르테미스(Artemis) 1호를 지난 11월 16일 발사했다. 탑재한 오리온 캡슐은 달의 뒷

면을 돌은 다음 지구로 12월 11일 (일요일) 귀환하여 멕시코의 바하 칼리포르니아 근처 태평양 바다에 착수(splashdown)했다. 이로써 NASA는 아르테미스 1호의 25½일 동안의 무인 달 왕복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12월 16일

日, 적 공격 임박 땀 선제타격 허용...방위비 5년내 2배 인상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16일 각료회의를 열고 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계획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안에 의결, 시행했다. 일본에서 5~10년마다 개정·발행하는 3대 안보 문서는 일본의 중·장기 군사 전략과 무기 보유 계획, 예상 재원 등을 담은 중요한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본 보수 강경파의 염원인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하였다. 적국의 일본 공격 착수를 확인할 경우엔 먼저 적 미사일 발사대 등을 타격하는 개념을 포함시켰다.

방위비는 5년 안에 현재의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이 2027년 방위비를 10



조~11조엔으로 증액하면 미국·중국에 이은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이 된다. 내년 방위비도 사상 최대 규모인 6조 8000억엔(약 65조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적국과 우호국도 이전보다 훨씬 명확하게 구분했다. 중국·북한·러시아를 가상 적국으로, 미국·한국·대만을 협력 국가로 기술했다.

12월 21일

젤렌스키 美의회 연설... 여야 의원들, 33번 박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극비리에 워싱턴 DC를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월 21일 오후 7시 36분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했다.

“우크라이나는 살아 있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역경과 파멸, 우울한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러분(의원들)들은 미국의 리더십이 확고하고 초당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며 “미국의 돈(우크라이나 지원)은 자선이 아니라 국제 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미 의회가 젤렌스키의 방미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

NEWS

지난 두달(11/12월) 국내외 주요 뉴스 (계속)

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급 지원 450억달러를 포함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발언이었다.

이날 미 의원들은 약 26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총 33번의 박수를 보냈다. 그중 21번이 기립 박수였다.

이에 앞서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가 함께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주권, 영토, 민주주의, 자유에 대한 공격을 방관한다면 세계는 더 나쁜 결과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을 미국 국민은 안다”며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우크라이나에 18억5000만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게임체인저’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과 합동정밀직격탄(JDAM) 키트, 위성통신체계 등 최신 무기가 포함됐다.

젤렌스키의 방미에 대해 CNN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당시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방미를 떠올리게 한다고 보도했다. CNN은 “당시 처칠은 독일의 잠수함 공격을 피해 ‘HMS 듀크 오브 요크’호를 타고 겨울의 차가운 대서양을 건넜다”며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간 동맹이 강화돼 2차 대전의 승리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날 의회 연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국민은 정의로운 힘으로 절대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루스벨트 전 대통령 연설문의 구절을 인용한 뒤 “우크라이나 국민도 절대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12월 26일

북한이 보낸 무인기 5대, 한국 영공 침범



북한 무인기 5대가 한국 영공을 침범해 비행했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전 10시 30분경 북한이 보낸 무인기가 한국 영공인 경기도 주변 국경 지역에서 비행을 하는 것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무인기 1대는 서울 북부 지역까지 진입해 비행한 뒤 북한으로 돌아갔다. 군은 제트기와 공격헬기를 투입해 100여 발 사격을 가했지만 무인기 격추에 실패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올해 들어 가장 잦은 미사일 시험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무인기 대응 작전을 지원하던 중 KA-1 경공격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당시 조종사 2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다치지 않고 비상 탈출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군사 시설을 촬영하기 위해 감시 비행기를 북한으로 보내는 등 상응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가 한국 국경을 넘은 것은 5년 전인 2017년 6월이다.

12월 31일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 95세 일기로 선종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은 건강 악화로 사임한 지 거의 10년 만에 95세를 일기로 지난 12월 31일 선종했다.

그는 2013년 2월 27일 교황직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8년이 조금 안되는 기간 동안 가톨릭 교회를 이끌었다.

베네딕토 16세는 바티칸 내 ‘교회의 어머니 수도원’에서 말년을 보내다 2022년 12월 31일 현지시간으로 9시 34분에 숨을 거두었다.

바티칸 교황청은 명예 교황의 시신은 2일부터 성베드로대성당에 안치돼 믿는 이들이 작별을 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1월 5일 베네딕토 16세의 장례 미사를 이끈다.

베네딕토 16세의 죽음이 공표되자 독일 뮌헨 성당에서 종이 수차례 울렸고 로마의 성베드로광장으로부터는 종소리 한 번이 들려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신년 미사에서 그의 “소중한 전임자”에 경의를 표하며 “베네딕토 16세의 희생은 교회에 본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2022년 한해가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홍역을 앓다가 지난 22년부터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지요.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기를 기대했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는 2023년 새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저의 식구들도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생을 했습니다만 사실 독감 수준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11월에 한국 방문 중에는 교회 연세 드신 분들 여럿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무척 걱정을 했습니다. 홀로 계신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금방 회복되었다며 크게 염려하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건과 문제가 많으면 그 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2022년 한 해도 그렇게 지나간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지속적인 사랑과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일이란 담임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다방면에 여러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 목회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한인들이 많지 않는 알버커키에서 그것도 젊은 교회의 일꾼들을 찾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래 전부터 은퇴 나이가 없다고 발표

를 하였지요. 질병으로 인해 몸을 움직일 수 없거나 지적 판단이 약화된 경우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올 2월이 되면 86세가 되시는 이경화 장로님은 여전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받아보시는 광야의 소리 역시 그 장로님의 편집과 인쇄하시는 수고로 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인터넷 웹사이트 역시 같은 장로님께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이 외에도 교회 각 분야에서 부탁만 드리면 주저 없이 해주시는 연세가 가장 많은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회 각 기관에서 수고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의 신앙교육을 담당해주신 교사 여러분들의 노고로 우리 학생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 소그룹인 속회를 맡아서 수고해주신 속장, 인도자 여러분들이 마치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속도원들을 잘 인도하셨기에 속회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된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매 주일마다 음식을 제공하신 교우 여러분과 여선교회에게 감사드립니다. 식품 구입에서 조리까지 더욱이 배식과 설거지까지 담당하시는 봉사와 헌신으로 지난 한 해 예배 후에 가졌던 식사 시간은 즐거운 친교시간이었습니다.

이제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새롭게 규정해주신 것도 지난해보다는 다르게 더 잘 살라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3년 한 해에는 소원하며 기도하시는 것들이 주 안에서 성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지난해에는 부족했던 것들, 실수 했던 것들 등 기억하기 싫은 나의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새해에는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힘차게 출발해봅시다.

또한 뉴멕시코에 거주하시는 모든 한인들과 광야의 소리를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새해가 축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시어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시고 힘들어 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헤아리시는 성령께서 새해에 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도록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질병이나 위협이나 재난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2023년 새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복되고 희망찬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칼럼

존 웨슬리 생애의 원년 (성령불-3)



나정용

뉴저지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1738년은 John Wesley가 35세 되는 해였습니다. 그 해에 그는 참된 ‘자유자’가 되는 실로 엄청난 신앙적인 내적 체험을 했습니다. 과거와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한 그는 비록 이 죄악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도 죄의 무거운 멍에를 벗어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해를 자기 전 생애에 일대 전 환점이며 생의 새 기원이라 칭하였고,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사건을 기록할 때 이 해를 원년이라 칭하고 모든 일을 계산하는 습관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엄청난 사건이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꾸준한 신앙교육, 특별히 어머니 Susanna의 뜨거운 신앙교육이 그 밑바탕이 되었으며, Oxford 대학교의 뛰어난 신학수업과 함께 Holy Club을 직접 인도하며,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한 영적 체험들, 특히 미국 Georgia 선교의 실패를 비롯한 크고 작은 수많은 신앙적인 체험들, 그리고 여러 번에 걸친 내적인 결단과 고백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를 변화시켜 놓았고, 마침내 1738년 5월 24일을 맞이할 준비를 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그는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새벽 5시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였습니다. 정오쯤 다

시 성경을 읽은 후 성공회 성당인 St. Paul Cathedral에 가서 웅장한 성가를 들으며 경건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밤이 되자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Aldersgate Street의 모라비안 신도회의 기도회에 참석하였고, 9시 15분 전쯤 인도자가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Martin Luther가 쓴 로마서 서문 중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사 큰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대목을 읽고 있었을 그때! 갑자기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령의 불로 온몸이 뜨거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음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기쁨이 하늘과 땅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기쁨이 그의 힘과 능력이 되었음을 깨닫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Hallelujah!

그 당시 성공회의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경향은 ‘자신의 선행을 쌓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었고, 성공회 신부였으며 오랫동안 Catholic Church의 영향을 받아 온 그는 자신의 도덕적인 노력으로 충분한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만족하게 함으로써 완전한 성화에 이르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 왔고,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 온 힘을 다 경주했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Aldersgate 체험은, 그간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Catholic 적인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 같이-- John Wesley의 ‘자아’라는 난공불락의 성이 근본부터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그날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I felt I did trust in Christ, Christ alone, for salvation; and an assurance was given me that He had taken away my sins, even mine, and saved m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John Whitehead, The Life of the Rev. John Wesley, p.79-80)

사실 그는 미국 (Georgia) 선교사로 가는 선상에서 산더미 같은 파도를 만났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적 평안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미국에 도착한 후 선교사역에 열심을 내었으나 그 결과는 1년 9개월 만에 완전히 실패하고 야반도주하듯 배를 타고 Georgia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또다시 강풍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죽음의 공포를 떨쳐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절한 심경을 아래와 같이 토로했습니다. “나는 미국 인디언을 구원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었다. 그러나 오! 누가 나를 구원한단 말인가?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인가 - -? 나는 위험이 없을 때는 나 자신을 믿다가 죽음의 위험이 가까이 올 때는 나의 마음은 공포에 빠진다. - - - 오호라!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할 것인가?”

(John Hampson, Memoirs of the late Rev. John Wesley. p.227)

사납게 풍랑 이는 갈릴리 바다는 물론, 요나가 하나님 낚을 피하여 도망하는 배 밀창까지, 아니 아득한 우주의 경계선으로부터 우리 몸의 실핏줄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단 한 곳이라도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께서 “John Wesley!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주님의 뚜렷한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았을지라도, 그의 중심은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실로 구원받지 못한 자기의 불쌍한 모습 발견은 그 자신을 한없는 슬픔으로 가득 채웠으며 가슴 치며 통곡하게 하였습니다. 죽음 앞에서의 나약한 모습 속에서는 약동하는 생명력은 전혀 없었으며 다만 캄캄한 검은 공허감밖에 없었습니다.

John Wesley는 진정한 참회와 상한 마음으로 슬피 우는 가련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불쌍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도덕적 노력과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내세웠던 것이 너무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진실로 참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슬프기도 하였으나 긍휼

넘치시는 주님의 용서를 받고, 이제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과 감사가 넘칠 뿐이었습니다. 그의 슬픔과 환희의 진정성 속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찾으러 오셨고, 그와 함께 동거하시며, 지혜의 선물도 주시면서 그의 인생 여정에서 승리도 주십니다.

말씀을 어긴 사람은 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 온 백성에게 미쳤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의 불순종이 될 수 있고,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온 인류를 병들게 하였듯이 - .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정직한 회개가 온 백성에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John Wesley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본인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을지 모르나,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는 건강한 회복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을 버리고 생명을 택하자, 진리의 성령께서는 그를 뜨겁게 하시어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주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믿음의 대가를 치르려 하지도, 위험을 감수하지도, 피와 땀을 흘리려 하지도 않았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희미해 가는 사명감과 Vision에 새롭게 불이 붙자 안일하게 느꼈던 자아의식도 다시 더욱 분명해져서 그 이후 다시는 나태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로 뜨거워진 그는 1) 모라비안 교도와 두터운 교제를 쌓으며, 2) Bristol을 중심으로 노방전도에 힘을 기울이다가, 3)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파에 힘쓰며, 4) 평신도 전도자를 양성하여 그들을 통해 영국 곳

곳에 복음이 전파되며, 5) 영국뿐만 아니라 식민지 미국까지 전도자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성령 체험 전과 후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선교의 본거지를 만드셨듯이, 그는 Bristol에 선교본부(New Room)를 만들고,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하셨듯이 제자들과 같이 먹고 자며 복음에 대한 열정적인 삶을 나누면서 일꾼들을 직접 길러 파송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불이 있어야만 합니다. 불덩어리가 되지 않고서 하늘나라의 거룩한 일, 즉 1) 고치며, 2) 살리며, 3) 깨끗하게 하며, 4) 쫓아내는 영적인 거룩한 능력의 일(마10:8)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 재주, 노력, 능력만으로는 턱도 없는 일입니다. 길바닥에서 함부로 버려진 연탄재가 차디차게 식어 아무 능력 없는 ‘나’를 향하여 ‘넌, 한 번이라도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야흐로 주님께서 2023년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해가 우리의 ‘1738년’이 되라고 - , 우리 생애의 원년이 되라고 격려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과 함께 - .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할 때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절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천국을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선물을 받은 자답게, 성령의 불덩어리 되어 황금(주님을 왕으로 모심), 유향(우리의 전 인격에서 생명의 활력이 용솟음 침), 몰약(바위같이 변함없는 진솔함)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새해를 삽시다.

Blessings at Happy New Year of 2,023 !
Amen!

수필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임동섭

목사

에콰도르선교사



친구의 동생은 유명 강사입니다. 그의 강연 핵심 내용은 “경쟁하지 않고 순수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는 것입니다.

그는 K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S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는 수입료를 현금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 대신 부동산으로 받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수입이 변호사 수입보다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3개의 건물에서 월 임대료가 약 1억 5천만 원쯤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종교 잡지를 타의에 의해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인수 당시 매월 500권쯤 발행했습니다. 잡지가 2종류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각각 7만권 쯤 팔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일할 때 수입이 좋았지만 주위에 나쁜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종교 잡지를 발행하다보니 수입은 적지만 주위에 좋은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할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위의 사람과 3가지 타입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세

가지는 협력, 평화적 경쟁 그리고 폭력적 분쟁입니다. 누구나 그 사람처럼 경쟁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도 경쟁 또는 분쟁에 말려들 수 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동물의 왕국과 비슷합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사라지고 지금은 200여개의 나라들이 남았습니다. 약한 나라들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나라들은 ‘싸움을 잘하는 나라들’ 입니다. 지금 남극을 제외한 모든 땅은 여러 나라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인 타니샤 파잘 (Tanish Fazal)은 국가의 죽음(State Death)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1816년부터 2000년까지 존재했던 나라가 207개국이었었습니다. 이 기간에 멸망한 나라가 66개국이었었습니다. 전체 국가의 32%, 즉 약 1/3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없어진 나라 66개국 중에서 75%, 즉 3/4에 해당하는 50개 국가는 이웃나라의 폭력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기본 조직은 ‘전쟁을 치룰 수 있는 능력의 확보와 유지’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능은 ‘조세와 징집’입니다.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나라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Michael Howard’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악이다! 그러나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 자는 그러지 않은 자의 손아귀 속에 자신의 운명이 맡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대국은 전쟁을 잘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막강해야 합니다. 군사력은 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강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부국, 그 다음에 강병이라는 순서를 지킨 나라만이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역의 규모가 커지면 평화롭게 살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무역 거래가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전쟁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국가 간의 무역 거래 액수가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고조되었던 1914년에 유럽 국가들이 치참한 전쟁을 했던 것을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는 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군사론’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17 페이지로 계속>

수필

우리 모두의 일

이정길

수필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리우데 자네이루에 모여 지구의 온난화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자는 안에 서명한 것이 30년 전이었다. 2015년에는 파리 기후 협약이 맺어져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움직임이 한층 더 활발해지기 시작했으며, 2021년에는 온실 가스 감축에 나서기로 합의한 파리 협약의 신기후 체제가 시작되어 기후의 변화에 실제로 대처하게 되었다.

재생 에너지나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에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그에 따라 투자도 기후 관련 분야로 많이 옮겨 앉는다. 2021년 11월 글라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에는 선명한 입장을 가진 각국의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다. 기업들은 정부의 요구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여 클린 에너지 기술을 구입한다. 국가·경제 산업의 공기업 부문에 비하여 민간 부문이 더 강력하게 작용함으로써 2022년에는 대기업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고 중지시킬 만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경종을 울리기 시작한 지 오래인데다가 대처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는 악화일로에 있다. 극단적인 날씨는 2022년에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한다. 가히 인류의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지경이 된 데서 세상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은 너나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반성하고 에

너지 소비 행태를 바꿔 그에 대처해야 할 때다. 생명이 위협당할 때 사람은 아주 빨리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똑똑히 가르쳐 주었다.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에 있지 않은 보통 사람도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공기 오염의 주범이면서 기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의 배기 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건강에 이로운 걷기나 자전거 타기에서는 탄소가 조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대중 교통 수단을 최대한 이용하고 카풀을 하면 돈도 절약된다. 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나 일정 소비량의 연료에 의한 주행 거리가 긴 차 또는 휘발유와 전기를 겸용하는 차를 사용하고, 소형 화물차나 스포츠카의 사용은 자제한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때에 맞춰 조율한다. 차에 무거운 물건을 싣고 다니지 않는다. 교통이 혼잡한 시간을 피해 운전하고, 일단 밖에 나가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본다. 과속하지 않고 가속 페달을 불필요하게 밟지 않는다. 조금만 관심을 두면 운전 습관은 쉽게 바뀌진다.

식단에서 육류를 줄이는 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자신의 건강은 물론 동물의 복지에도 기여한다. 극단적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육류 소비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가능한 일도 아니려니와 소가 배출하거나 퇴비 더미에서 발생

하는 메탄 가스는 온실 가스 배출량의 4%에 불과해서 기후 변화를 막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연간 소득이 높은 나라에서 일반 사람들이 식생활을 육식에서 채식으로 약간만 바뀌도 농업 분야의 배기 가스 배출이 거의 2/3나 줄어들고, 버려지기 쉬운 가공 식품이나 대량으로 주문하는 식품들의 구매를 줄이면 가구의 탄소 배출량도 크게 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먹으면 운송에 드는 에너지의 소비가 준다. 유기 농법으로 재배된 식품을 먹으면 화석 연료로 만드는 비료의 사용도 줄어든다.

절전, 절수, 재활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료·에너지·식량 등의 자원을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은 현대인 축에 못 든다. 세탁기, 식기 세척기, 냉장고는 ‘절전용’ 표시가 붙은 것을 사용한다. 전구는 형광등이나 발광다이오드 LED로 바꾸고 사용하지 않는 기구는 플러그를 빼어 둔다. 냉난방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알맞게 조절한다. 변기나 샤워어 장치를 절수용으로 바꾸고 정원용 살수기도 새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 지붕에 태양열 발전 장비를 갖추면 전기료를 감해 주거나 면제해 주기도 한다. 무엇이든 고쳐 쓰고 잘 이용하면 물건의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배기 가스를 줄일 수 있다. 비행기 여행은 되도록 피하되 불가피한 경우 이코노미 클래스를 이용하라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수필

프랭크 매코트의 신천지



나정자
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사모
/ 수필가

요즘엔 비 같지도 않은 빗방울들이 자주 추근추근 짹짹입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제법 엄청 쏟아 지기도 잘 합니다. 비 오는 창밖을 무심히 내다보던 나는 마치 먼 길을 떠나려던 사람이 쏟아지는 비에 엉거주춤 붙잡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새 길을 떠나려는 품새는 아니지 싶습니다. 이제까지 지나왔던 길목을 되돌아보려는가 봅니다. 지리도 주변머리 없었을지라도 돌아보면 참 신기하고 아름답고 웃어지고 넉넉히 이해도 되는 세월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정든 길목들입니다. 이런 걸 보고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다 함함하다 한다던가요?

그렇지라도 반세기가 넘도록 그 길목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내내 들여다보아 왔던 까닭은 항상 만만치 않은 세상을 만나느라 애쓰던 나의 서툰 모습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초년병 시절! 언감생심 역경을 함께 견디며 이겨내고 참고 기다려야 듣게 된다는 조강지처란 말조차 생소하고 전혀 길들여 지지 않은 신참을 데리고 내 신랑은 이 턱없이 부족하고 불편하고 또 없고 없고 없고 뿐인 논두렁길 고아원으로 장화도 없이 진군합니다. 열떨결에 들어서게 되었던 그곳은 별천지! 멀쩡한 아이들이 6.25 전쟁통의 줄지에 고아가 되어버려 먹어도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놀라 허기진 눈동자들만 있던 곳!

어렵사리 마장동 소시장이며 불광동 김장 시장을 돌며 구해온 무척 시래

기로 사려 깊게 끓여낸 영양탕에 라면 땅 후식까지 있었건만 그것으로가 아닌, 조식을 불문하고 목청 터져라 열창하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 라야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허기를 면하던 시절...사는게 마치 영육간 전쟁터를 방불케 하던 기억들은 아직도 또렷한 멧세지입니다.

또 그다음은 거의 40년 전 겨울로 올라갑니다. 미국 유학 마치면 내 나라로 당당히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남편은 아이언 감독의 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미국 선교사들한테 신앙의 빛을 쬔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였습니다.

(하기는 그때는 타인종 목회하는 한국인 목회자가 극히 드물었죠)

그리고는 부임한 교회가 애쉬베리 감독이 처음 시작했다는 교회로 온통 하얀 백인 일색 교회였지요. 남편은 사명감으로 부임한지만 나는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등등 후천적 지능은 가족에게서 먼저 배우게 된다는데.

도대체 유교 집안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 백인 교회 목사관 안주인이 무엇인지 채 눈도 뜨기 전에 그 교회에서는 첫해부터 매년 12월 첫 주 토요일은 하루 종일 목사관을 오픈하는 일명 “크리스마스 커피”가 전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야 하는 말도 어눌한 데다 백여 명의 백인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는 배우자와 가족까지(목사에 대한 에티켓이라고) 동반하는 이 전통은 말 그대로 ‘앗찐’이었지요.

미국 역사를 좀 알아야 담임목사 부인 ‘노릇’을 하겠기에 급한대로 근처에 있는 Saint Elizabeth College에 등록하여 American High 역사를 비상약 먹듯 하며 진땀 빼던 판!

그러나 담임목사네가 한국인이었기에 심성 깊은 교우들의 배려와 협조로 매년 휘황찬란한 크리스마스 커피는 해를 거듭할수록 ‘결 기대’ 이벤트로 마크되어 가곤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리둥절 당황했던 기억은 지금도 왕창 쏟아지는 창밖 빗소리 정도는 저리 비켜라입니다.

말도 피부색도 사고방식도, 또 젓가락이 아닌 칼과 포크 문화며, 그뿐만 아니라 위아래 상관없이 이름을 불러대는, 소위 홉스테드의 권력 거리 지수 (Power Distance Index, 위계질서 척도를 중시하는 문화)가 제일 낮다는 미국인들을 PDI가 세계 제2위로 높다는 양반 한국인 우리는 지체도 잊은 듯 저들을 섬기며 영성했을지라도 모세 노릇 하느라 뒤죽박죽 알랑했던 시절! 게다가 나는 그리 투철한 사명감으로 살지도 않았건만 타고난 내 등판 번호 “대~한민국”에 혹이나 얼룩질세라 동분서주 좌충우돌 열 올렸던 그때 일들이 마치 한 편의 어린이 동화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바람 신바람에 잡혔던가 봅니다.

노다지 덜커덩 덜커덩 뽕판 모험같은 문화적 도전의 연속이었을지라도 그러나, 돌아볼 때마다 내게는 그것들이 오늘을 요만큼 살게 하는, 두 손 들어 받아들여야 할 성찬 같은 사건들이었습니다. 단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특별한

엔진이나 브레이크나 핸들로 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험레벌떡 이었다 할 지라도 그것은 항상 히브리서 4:12-13의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는 현상이곤 했습니다.

지난 3일은 올해 2022년 12월 첫 번째 토요일, 크리스마스 커피 날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그 겨울, 12월 첫 토요일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아직도 정신이 번쩍 들곤 합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마침 날도 축축하고 해서 그때가 되면 매년 만들었던 음식 중 하나인 라자니아 두 판을 구웠습니다. 한 판은 손자들에게 보내고, 또 한 판은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름대로 추억을 나누는 셈입니다. 때르릉~ 손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라자니아가 좋답니다. 나는 이때다 하며 서둘러 할머니의 연중행사 라자니아 스토리를 또 활 나간다. 총 나간다. 식으로 기회를 놓칠세라 읊어 댁니다. 맨날 이거다 저거다 연습이다. 레 쓴 이다 바빠 사느라 잘 만나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을, 무엇보다도 이민으로 정착하게 된 사연을 또 조금 전한 것 같아서 혹시 귀담아들었을까? 손을 모읍니다.

달포전, 뉴욕 브루클린 지역에 흩어져 살기 시작한 아이리쉬들의 이민사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재미있다는 사위의 권고로, 온통 욕지거리로 시작되는 프랭크 매코트의 ‘안젤라의 재’를 읽었습니다.

가지가지 혹독한 가난과 분노, 원망들만 우글대는 집안에서 반짝반짝 한 맑은 어린 영혼이 가혹한 세상을 드나듭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주정뱅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7살짜리 아들 프랭키의 성장 스토리가 565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이 책을 읽은 보람을 갖게 합니다.

술 한 잔만 들어가면 그 술기운에 엉겨 먹을 게 없어 저녁도 굶고 잠든 아이들을 벼락 치듯 깨워 세우고는 시도 때도 없이 “아이랜드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를 복창케 하던 아버지 말라키! 당면한 현실에 질질 끌리느라 술독에 빠져 사는 아버지였을지라도 이른 아침이면 신문에 난 세상 이야기를, 또 잠자리에 들기 전 그가 지어 비벼 낸 얘기들은 그 어린 프랭키로 원망과 분통의 술독에 빠진 아버지의 슬픈 가슴속을 읽게 하더니, 마침내 풀리처상 수상자로, 뉴욕 타임스 선정 작가로, 열정적인 고등학교 교사로, 유머러스한 아

이리쉬 뉴요커로 끝을 본 인생 스토리!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조르면 아빠는 골목에 사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내고, 이야기는 우리를 온 세계로 데리고 다니며 하늘 위로 날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골목으로 돌아오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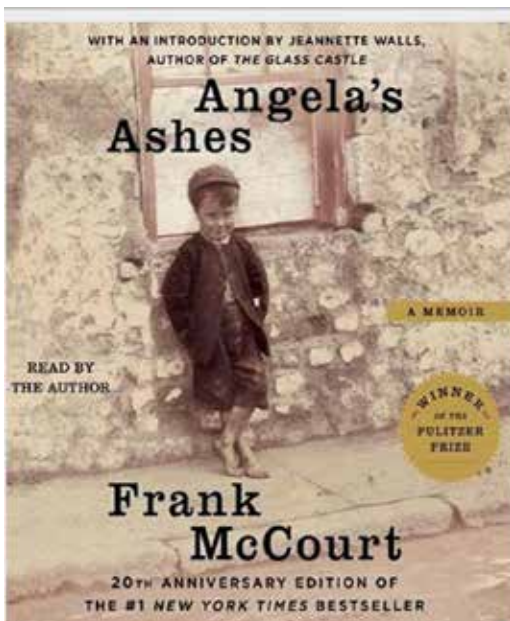
아빠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피부색도 다르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거꾸로다. 자동차와 비행기가 물속으로 들어가고 잠수함이 하늘을 난다. 상어가 나뭇가지에 앉고 거대한 연어가 달에서 캔거루와 장난을 치고 논다. 북극곰이 호주에서 코끼리와 씨름을 하고, 펭귄이 줄루족에게 백과아프 부는 법을 가르친다.

이야기가 끝나면 아빠는 우리를 위층으로 데리고 올라가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무릎을 꿇는다...나는 아빠가 나쁜 짓을 할 때면 슬프지만, 그렇다고 아빠를 멀리할 수는 없다. 아침의 아빠가 진짜 우리 아빠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아무때나 아빠를 얘기하면 바보 멍청이이다...”(본문 중에서)

이 몇 줄 프랭키의 가슴을 덮어주고 열어주던 아버지의 얘기! 암울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같은 얘기! 과연 이 신천지가 어떻게, 언제쯤부터 찢들고 찢어진 말라키의 가슴에서도 숨을 쉬게 되었던 것일까!

아마도 라틴어는 신성한 것이니 무릎 꿇어 배우고, 암송해야 한다고 하시던 그 때 부터? 아니 교황께서도 의자에 앉아 라틴어를 말하진 않을 거야 하시던 그 때 부터?

아버지 이고 싶을 때마다 쏟아지는 신묘막측한 다른 세상 얘기! 상어가 나뭇가지에 앉고 잠수함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기한 세상 얘기! 그 신기한 세상 소식을 듣고 싶어 시도 때도 없이 한밤중에도 소리쳐야 하는 “아이랜드를 위해 죽겠습니다!” 복창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 오히려 한바탕씩 신나



는 세상을 훨훨 날아 보게 할 뿐이었습
니다.

비록 자신도 주체 못 하는 존재였을지
라도 그는 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만큼은 아침 신문에 나오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역설하느라 신
바람 세상, 신명 나는 별세상을 요술처
럼 읊어내는 말라키.

아이들을 이야기 날개에 태워서 온 세
상을 데리고 다니며 하늘을 날고 바닷
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골목으로 돌
아오고...펼쳐지는 아버지의 신바람 신
천지는 어느새 비자도 국적도 금수저
도 상관 못 하는 3차원의 만능 세상으
로 들어서게 하곤 하는 것이었죠. 결
국 신바람 곧 하나님 바람은 과연 분간
할 수 없는 세상 바람을 다스리며 누리
게 하는 함부로 측량할 수 없는 권세였
습니다.

북극곰이 호주에서 코끼리와 씨름을
하고... 자동차와 비행기가 물속으로
들어가고 잠수함이 하늘을 날고...이
엄청난 세상을 읊던 술꾼 말라키! 찢어
지는 가난과 터지지 못하고 끓는 불화
산 같은 말라키였을지라도 그가 읊어
내던 신명 나는 세상을 귀담아들었던
19살 프랭키는 근근이 돈을 모아 미국
브루클린 이민선에 오릅니다.

빌트모어 호텔에서 잠시 잡일 자리를
얻지만 바로 군에 입대, 한국전에도 파
견되고, 군 복무 후에도 기댈만한 아무
어덕이 그는 갓은 고생을 달고 살면서
천신만고 끝에 뉴욕대에서 학업을 마
칩니다. 그는 이민자 어머니들에게 영
어를 가르치는 열정적인 강사를 “시작”
으로 마침내 뉴욕 지역 고등학교 교사
로 뉴욕 시립대학 교수로 유머러스한
아일랜드계 미국인 작가로 활동.

나이 66세에 ‘안젤라의 재’로 풀리처상
을 수상합니다. 혹독한 고난을 떨치지
못했을지라도 항상 가슴 찡한 특유의
유모어로 주변을 밝히던 아이리쉬 이
민자 프랭키는 79세를 수고하고 2009
년 맨해튼에서 암으로 영원을 갔다고

합니다.

그는 회고합니다. “어릴 적 고생을 떠
별리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지만, 나
의 아일랜드판 고생과는 비교도 안 된
다. 지독한 가난, 무능에다 술에 찌든
아버지, 떨감도 없어 떨며 좌절, 탄식
하는 어머니, 거만한 신부, 옥박지르는
선생, 800년 동안 우리에게 행한 영국
인들의 끔찍한 일들 등, 무엇보다도 새
년 강가 회색 비에 젖어 멈출 줄 모르
는 그릉그릉 가래 끓는 소리, 잔기
침 소리...코는 늘 마르지 않는 샘이었
다... “ 고.

뉴욕을 웃으며 허허로이 영원을 간 아
일랜드계 이민자 프랭크 매코트! 편안
함 속에서 허세 부리며 허약해져 가는
기득권자들에게 의식 있는 세상을, 기
득권에 눌린 이민자들에게는 움직이
는 만큼 삶의 지경은 확장된다고. 움직
이는 만큼 눈에 보이는 것 보지 못하
는 것까지 벌써 다 확장되더라는 열변
입니다.

아무리 다 물러터진 세상이라 할지라
도 세상에 공짜나 헛수고는 절대 없다
는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는 신천지
를 밟는 고난의 신비를 이렇게 전합니
다. “안주하면 가라앉을 뿐이다”라고.
피부색도 다르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거꾸로 된 것이 정상인이 세상에서 신
바람으로 북극곰이 호주에서 코끼리와
씨름하는 것을 보며 웃을 수 있었던 프
랭크에게 엄지척 을 보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
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 나는 아
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
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
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
하여 ...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
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빌립보서
3:12-16) 아멘!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13 페이지에서 계속

“선천적으로 용감한 사람은 거의 없
다. 대부분이 훈련과 군기를 통해서
용감해 진다.”라는 금언도 남겼습니
다. 미국 사회학자인 ‘Charles Tilly’
는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
쟁을 한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구약성경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
다!(삼상17:47)”고 기록되어 있습니
다.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소개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바울은 자신
의 신앙생활을 “선한 싸움을 다 싸우
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전쟁이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시작되거나 진행되는 전쟁
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
경에는 130여회의 전쟁들이 기록되
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
오는 말씀은 영적전쟁에 대해 말해주
고 있습니다.

삶이 곧 영적 전쟁임을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Live(살다)라는 영어 단
어는 Evil(악)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놓은 것과 같습니다. 삶이란 악을 거
스르고 대항해서 승리해야 진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쟁의 본질은
스스로 범한 죄의 결과로 받는 징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
상 기도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
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왜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하는가?

신경일

(전)UNM병원Chaplain 목사

Los Alamos Medical

Center 근무



마태복음 24장 32~33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의 재림 (Second coming)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 (Fig Tree)는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합니다.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한 지 70년이 되었으니 한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나무의 최종 세대입니다. 하나님 말씀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장자요 눈동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Titus)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초토화해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2천 년 동안 대체 신학과 Anti-Semitism (반 유대주의 또는 유대인 배척 운동)으로 유리방황하며 핍박과 굶주림과 온갖 재앙으로 고생했지만, 유대인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노라 (Menorah: 아홉 가지 촛대), 탈무드 (Talmud) 와 토라 (Torah) 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Kyros) 였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라도 이스라엘 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였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말한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 하되”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70%가 Barren land, 즉 메마른 불모지 땅으로 사람이 생존할수 없는 땅 인데 본토로 돌아간 유대인의

노력의 결과로 지금은 옥토가 된 놀라운 기적으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Restoration of Israel)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탄생한 1948년에는 Christian church 교회가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날 2022년에는 100여개의 교회가 세워졌다는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한국이 이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전 이스라엘을 마지막 주자로서 구원 (로마서 11:26) 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1:8절에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실력과 보지못한 눈과 듣지못한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의 말씀과 같이 사탄의 계략으로 대체신학 (Replacement Theology)과 Anti-Semitism 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스라엘의 복음화가 이뤄 짐을 볼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 9월에 Chritian 유대인 목사 32명이 한국의 International 필라델피아 서울 김포영광 교회에 초청되어 함께 예배를 들이며 하나가 됨을 보여 주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벨렉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아우의 이름은 옥단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옥단으로 결국 이스라엘과 한국은 성경적으로 형제 국가입니다. 잠언서 17장 17절에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 까지 위하여 났느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자는 형통 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2023년에도 이스라엘에 100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자도 2년전부터 한 개척교회를 support(지원)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언약의 성취에 일익을 담당 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기여한 유대인 3인방을 소개 합니다. 첫째로 대한민국의 건국 아버지 이승만 박사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입니다. 6.25 동란이 터졌을때 이승만 대통령의 뛰어난 외교실력과 프란체스카 여사의 타자기로 손가락이 터져라고 각 나라에 편지하여 설득하여 UN의 16개국을 결속하여 한국을 도울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6.25 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과 맥아더 (McArthur) 장군의 인천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승리를 이끌었고 마지막 낙동강 전선에서 사수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했다고 확신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 한국 경제 개발에 혁혁한 공을 세운 Isenberg 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분! 프란체스카 여사, 맥아더장군, Eisenberg 에게 찬사 (Praise)를 보냅니다.

Aliyah operation 을 적극 support 해야합니다. 교회개척에 아낌없이 도와야 합니다.

Gospel의 마지막 주자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때까지 흰 세마포를 입고 Rapture Bride (휴거신부) 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갑시다.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2023 새해에도 승리하는 한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평강히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New Mexico 에서 신경일목사

생활영어

영어이야기 24 숫자 이야기



이상목

전자공학 은퇴 교수
아마추어무선사
(K7MOK)

일년에 달이 12번 지구를 돌기에 일년은 12달로 12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12라는 숫자는 고대 수메르의 12신에서 나온 숫자라고 합니다. 수메르인들이 숫자를 셀때 엄지손가락으로 나머지 4손가락의 마디를 세었는데, 손가락 하나에 3개의 마디가 있어 전부 12개를 세게되므로 12가 기본셈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 요한계시록(Revelation) 21장에도 12 문(gate)과 12 천사(angels)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대 Greece에는 Olympus의 12신이 있었고, 사람몸에는 12쌍의 갈비뼈가 있고(양쪽에 12개씩 모두 24개), one dozen egg도 12개, one foot는 12 inches, 시계는 12시간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봅니다(하루는 12시간의 두배인 24시간). 영어의 숫자 읽는것을 보아도, eleven은 one left의 뜻으로 10개하고 하나가 남아 11이 되고, twelve는 twelf에서 온 말로, 2개가 남아있다는(two left) 뜻으로 10개와 남은 두개는 전부 12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1부터 12까지 독자적인 이름으로 되어있어, 쉬운 10진법이 아니라 12진법인 셈입니다. 13부터는 10진법에 의거해 말하지만 이것도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어사용권 어린이들이 10진법에 의한 숫자세기로 단련된 한중일(韓中日) 어린이보다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중 하나라고도 합니다. Thirteen, fourteen의 “-teen”은 10을 뜻합니다. Thirty, forty의 “-ty”도 10을 뜻합니다. 11과 12를 10

진법식으로 ten-one, ten-two나 13, 14를 ten-three, ten-four로 부르기에는 역부족인것 같습니다. 왜냐면 변화는 항상 전통의 저항을 받기 때문입니다.(Change always meets the resistance of tradition.) 100을 나타내는 hundred는 “ten times” (10배)라는 뜻으로 10의 10배는 100입니다. 영어단어가 10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것을 볼수있습니다. 1000을 나타내는 thousand는 부풀은 100(swollen hundred)의 뜻으로 매우 큰 숫자를 나타내는데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기본 숫자개념으로 10이나 12 외에도 3, 4, 5, 20도 사용되었는데, 불어(French)로 80은 quatre-vingts인데 4개의 20이란 뜻으로 (4 x 20 = 80) 20진법의 잔재라 할수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띠를 나타내는 12지신(地神)도 12개의 동물로 구성되어 있고, 서양 점성술에 운세를 나타내는 Zodiac도 황도(黃道)12궁으로 12개의 별자리로 되어있습니다. 기본숫자가 12일때, 숫자 10보다 좋은점은 자주 사용하는 나눗셈이 소수가 아닌 정수로 떨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Pizza를 12개의 조각으로 나누었을때, 12개의 반은 6조각, 1/2은 4조각, 1/4은 3조각이 되지만, 10개의 조각으로 나누었을때 반(半)은 5조각, 1/3은 3.333..., 1/4은 2.5(두개 반) 조각으로 정확하게 나누기가 조금 불편하지만(두배인 20과 24를 보면 24는 2, 3, 4, 6, 8, 12로 나누어 떨어 집니다), 10진법이 다른 여러방면에서 3, 4, 5, 12

진법보다 쉽게 이해되고 응용되어 10진법이 대세가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Ironic 하게도 현대첨단 기술인 Digital세계는 0과 1로 구성된 2진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엔 비효율적이고 어렵지만 (계산하는데 헛갈리기 쉬움, 특히 뺄셈은 계산할때 쉽지않음), 전자회로는 2진법을 사용하여 논리구조가 간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숫자8(八)을 좋아하는데, 숫자4(四)의 발음이 죽을 사(死)와 발음이 비슷해 기피하는 숫자인것처럼, 8의 발음인 “빠”와 재산을 모아 부자가된다는 뜻 가진 발재(發財)의 발음인 “빠차이”의 첫발음인 빠(발:發)와 같아 행운의 숫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베이징 Olympic도 2008년 8월8일 오후 8시8분에 개막되었으니 중국인들의 “8”사랑은 대단합니다. 숫자8은 다른숫자와 달리 끝 3자리 숫자가 8로 나누어지면, 앞에 무슨 숫자가 오더라도 항상 8로 딱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면 1008÷8=126, 17320÷8=2165, 375104÷8=4688에서 보듯이 소수점없이 나누어집니다. 숫자 8이 사용되는 예를 보면, 노아의 방주(Noah's Ark)에 8명의 사람이 탔고, 생명공급선인 산소(oxygen)의 원자번호는 8이며, 태양계행성중 제일작았던 명왕성(Pluto)은 너무작아 행성(Planet)자격을 2006년 잃어 태양계행성은 8개이며,

음계는 one octave인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이어 지는 8음계가 자리를 잡았고, 유태인 할레는 생후 8일만에 합니다. Computer memory의 기본 size 바이트(byte: 32 GB = 32 Giga Bytes)는 8-bit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미류의 발은 8개, 문어(octopus)도 발이 8개, 자동차도 실린더가 8개인 V8 engine이 힘이 좋습니다. 거미는 영어로 “spider”, 거미류(거미, 전갈따위)는 “arachnid”입니다. 숫자 9(九)도 중국어의 구(久: 오랜 구)와 발음이 같아(장구(長久)한 세월), 아라비아숫자중 제일큰 숫자이므로 선호하는 숫자중 하나입니다.

재미있는 숫자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4자리 숫자중 0000을 제외하고 앞의 두자리 숫자와 뒤의 두자리 숫자를 더해서 제공하면 원래의 4자리 숫자가 되는 숫자가 3개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2025 = (20+25)^2 = (45)^2 = 2025$,
 $3025 = (30+25)^2 = (55)^2 = 3025$,
 $9801 = (98+01)^2 = (99)^2 = 9801$.
 727을 제공하면 528529 로

연속된 두개의 숫자로 나옵니다. 더하기나 뺄셈, 곱하기등을 할때 주어진 숫자를 더해서 한자리 숫자로 만들어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수있는데, 기본 셈능력이 필요한 초등학교(Grade school or Elementary school) 3, 4년 학동들에게 좋습니다. 편의상 Sang's Single Digit 이라 이름지었는데, 필자가 국민학교 4학년때 아침 조회시간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덧셈과 곱셈만 들었는데, 나중에 집에와서 뺄셈, 나눗셈, 소수점까지 해보니 한치의 오류도 없었습니다. 어떤 algorithm 으로 이러한 연산방법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숫자를 예문에 든것처럼 한자리 숫자가 될때까지 더합니다. 덧셈은 더하고, 곱하기는 곱하면 됩니다. 결과치도 각 숫자를 더해서 한자리 수로 만들면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소수점이 있는 계산도 적용됩니다. 뺄셈은 결과와 빼는 수(subtrahend)를 더해서 check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238 \square 65 = 173$ 은 $173+65$

= 238로 check하면 됩니다. 뺄셈 $238 \square 65 = 173$ 에서, 238은 minuend, 65는 subtrahend, 결과인 4는 difference라고 합니다. (덧셈의 결과는 sum) 곱셈의 경우, $238 \times 65 = 15470$ 에서 238은 multiplicand, 65는 multiplier, 결과인 15470은 product라고 합니다. 나눗셈(division)은 정수(whole number)로 나누어지는 경우, 나누는 수로 곱해서 위의 방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9624 \div 12 = 802$ 는 곱하기인 $802 \times 12 = 9624$ 로 check하면 됩니다. 나눗셈에서, 나누려고하는 수(위의 예에서 9624)는 dividend, 나누는 수인 12는 divisor, 결과인 802는 quotient라고 합니다. 나머지(remainder)가 있는 나눗셈은 한두단계 더 들어가야 되기때문에 효율이 떨어져, 나누기는 나머지지 않는 나눗셈에 적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소수점(decimal point)이 있는 숫자 20.5는 twenty point five라고 읽으면 됩니다. Thank you.

For Addition:

$$\begin{array}{r}
 238 \rightarrow 2+3+8=13 \rightarrow 1+3=4 \\
 + \quad 65 \rightarrow 6+5=11 \rightarrow 1+1=2 \\
 \hline
 303 \rightarrow 3+0+3=6
 \end{array}$$

$4 + 2 = 6$; Add together
 Matched

For Multiplication:

$$\begin{array}{r}
 238 \rightarrow 2+3+8=13 \rightarrow 1+3=4 \\
 \times \quad 65 \rightarrow 6+5=11 \rightarrow 1+1=2 \\
 \hline
 1190 \\
 1428 \\
 \hline
 15470 \rightarrow 1+5+4+7+0=17 \rightarrow 1+7=8
 \end{array}$$

$4 \times 2 = 8$; Multiply
 Matched

기행문

한국 방문 후기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신학교 건물이 왜 이리 썰렁합니까?” 하고 물었다. 건물 안에 들어서서 던진 나의 첫 질문이었다. 나를 안내하던 대학원 학생은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 안 되어 서영석 교수의 부탁으로 협성대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다. 서 교수는 10년 전 쯤에 쓴 내 책 “잃어버린 신화를 찾아서”를 가지고 학생들과 독서 클럽을 하고 있는데 책 저자인 나와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던 것이다. 모임 후에 서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학교가 처한 상황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신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신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 가운데는 의도적으로 다른 학과로 전과하기 위해서 온 학생들도 많다는 것이다. 이런 학생들은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다른 학과에 비해서 신학과가 입학하기 수월하니까 일단 입학은 해놓고 본인이 원하는 다른 학과로 옮기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한국에는 감리교 신학대학, 협성 대학, 목원 대학 등에 감리교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과가 있다. 신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자 앞으로는 감리교 교단에서는 신학교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신학교만 문제는 아니었다.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했다고 목회를 하고 있는 동기 목사들과 인천 차이나타운에 있는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다. 나는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예정보다

50분 일찍 식당에 도착했다. 남은 시간에 자유공원 뒤쪽에 위치한 차이나타운을 돌아보면서 옛날 차이나타운에 있었던 화교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기억도 회상하였다. 식당으로 돌아와 보니 두 명의 목사가 와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남이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대화에 동참하였다. 대화의 내용은 한국 교회가 힘들다는 것



이다.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크다고 했다. 현재 교인들은 60퍼센트 정도만 출석한다고 한다.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둘 다 제법 큰 교회 목사인데 얼굴이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들이 심한 타격을 받았다고 했다. 오기로 한 동기 목사들이 모두 모였지만 이야기 가운데는 목회가 힘들어졌다는 말들이 많았다.

부산에 갔을 때에 신학교 시절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 친구는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을 다녔었는데 지금은 부산 장로회 신학대학 설교학 교수란다. 전화로 먼저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는 예전처럼 활기에 넘쳤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임에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문제는 처음 서로 얼굴을 마주칠 때 너무도 달라진 모습에 당황하며 아주 잠깐

말을 잊었었다. 친구 조 교수는 성격도 밝고 목소리도 활기차기에 그가 가르치는 신학교만큼은 부흥 성장하고 있는 듯 해서 학교 상황에 대해서 물었지만 대답은 다른 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평택 대학교 교회였다. 이 교회는 김수 목사가 담임하고 있다. 김동수 목사는 내가 하버드에서 같이 공부했었고 이후 영국으로 가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와 피어선 선교사가 세운 평택 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부임해서 현재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김 교수의 부탁으로 대학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이다. 김 교수 역시 한국 교회와 신학교 교육에 대한 걱정이 컸다.



부산 장신대 조성현 교수와 함께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마음이 찻찻했다. 미국 신학교와 미국 교회도 한국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벌써 할아버지가 된 동기 목사도 있고 이미 은퇴한 동기 목사도 있는 이 시점에 쓰러져 가는 교회를 묵묵히 바라만 보다가 사라져야 하는지 심란할 뿐이었다.



기행문

뉴욕 여행

송은숙



대한관광여행사사장
Dae Han Tour US
Dallas TX

I Love NY ~, 뉴욕여행

누구나 한 번쯤 꿈꿔왔던 여행 버킷 리스트.... 잠들지않는 도시이자 세계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경제와 문화예술의 도시 “뉴욕”으로, 겨울 여행을 떠나보자.

기내에서 내려다보이는 뉴욕은 허드슨강 입구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동서로 뻗은 뉴어크(Newark)와 브루클린(Brooklyn)의 다리를 교차하는 주요시 맨해튼(Manhattan), 스테튼 아일랜드(Staten Island), 롱 아일랜드(Long Island)의 세 섬에 걸쳐 도시가 펼쳐져 있다. 이 화려한 도시가 어떻게 세계 정상의 힘을 가지고 있어 경제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

역사를 들여다보면, 다민족인 이민 선조들은 고된 삶과 투쟁 그리고 끝없는 의지와 노력으로 지금의 뉴욕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뉴욕의 화려한 빌딩과 세계 최고 문화예술의 찬란함 뒤에는 이들의 피눈물 나는 혁명과 전쟁으로 거둬 발전했다

뉴욕을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이탈리아 탐험가 조반니 다 베라차노가 프랑스의 왕 프랑수아 1세의 명으로 탐험하여, 1524년 뉴욕 북쪽 항구만을 발견했지만 정착하는 데는 실현하지 못했다. 1609년 영국의 탐험가 헨리 허드슨은 동북항로를 개척하며 뉴욕항구에 도착하여 오늘날 허드슨강을 발견했고, 1624년 네덜란드 이주민들이 모피 무역을 하기 위해 남부 항구에 도착하여 정착했다. 그리고 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과 영국의 습격을 보호하기 위해 네덜란드 의 식민지 총독 “피터 미누이트(Peter Minuit)”는 1926년 마침내 아메리카 원주민 레나페족으로

부터 맨해튼섬을 당시 \$24의 물품과 교환함으로써 식민지를 세우고, 그 이름을 “뉴암스테르담”이라 지명했다. 그러나 1664년 9월8일 영국이 뉴암스테르담을 강제 점령하면서 그 주변과 지역을 식민지로 통치했고 영국 찰스 2세가 동생 “요크 공작”에게 땅을 하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따서 “뉴욕”이라 개칭했다.

뉴욕은 대영제국의 지배하에 중요한 무역항구였으며, 1700년에는 뉴욕시청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됐다.

유럽 국가 일부인 잉글랜드인 청교도, 프랑스, 스위스, 위그노 등 많은 부유층이 뉴욕으로 이동했으며 농업확장과 필요한 노동자를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1860년대까지도 뉴욕의 40%를 차지한 아이랜드, 독일, 외 다수 이민자로 구성되어, 뉴욕을 중심으로 13개의 식민지가 생기면서 미합중국이 결성되고 뉴욕을 수도로 정했으며 1776년7월4일 미국이 독립선언을 했으나 영국은 인정하지 않았다. 영국은 군사를 보내어 미국의 식민지를 더욱 강화했으며, 과도 세 인지세법(설탕, 밀, 철, 소금 이외에 거둬들이는 출판 세금)을 거둬들여 미국식민지의 불만이 커지고 곳곳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마침내 보스턴 학살 사건으로 이어지면서부터 7년간의 독립전쟁이 시작된다.

미국은 13주(뉴햄프셔,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메릴랜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가 단결하여 총사령관인 조오지 워싱턴 장군의 지휘하에 영

국에 대응하는 전쟁을 이어갔고, 1783년 결국 프랑스와 스페인 동맹국의 전쟁을 끝으로 파리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미국의 독립을 영국이 인정하고 드디어 미합중국이 탄생하였으며, 총지휘하던 조오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뉴욕의 수도를 상실하고 후에 수도를 워싱턴으로 정했다.

이렇게 뉴욕은 순탄치 않은 혁명과 전쟁을 이어가며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번창의 길을 이어간다. 다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을 펼치면서, 아일랜드, 독일, 유대인/아프리카 미국인의 대거 이동으로 천만 명을 넘는 인류역사상 최초로 메가 도시로 발전했으며, 1904년 뉴욕 지하철이 개통되고 급격한 경제가 변화되는 월가는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세계 2차대전 이후의 뉴욕은 정치적 중심지로서 국제연합본부(United Nations) 들어서고 정치와 경제를 더욱 강경시켰으며, 서구문화가 번창하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를 파리가 아닌 뉴욕이 중심지로 격상하게 됐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뉴욕은 음악과 미술의 성지로 불려질만큼의 뮤지션들이 모이고 미국의 포크 음악이나 재즈 음악이 번성하는 요인이 됐으며, 재즈 전설의 음악가 루이 암스트롱의 음악이 뉴욕 할렘에서 탄생했고,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뉴욕 뉴욕”을 주제로 한 프랭크 시나트라 음악성도 뉴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은 본사를 바탕으로 ABC, CBS, FOX.

NBC, 그중에도 NBC의 본사는 록펠러 센터(Rockefeller Center)에서 매일 아침 생생한 생방송을 관중과 함께 보도하고 있으며 전세계의 영향력 있는 일간지인 뉴욕 타임스지, 세계 경제를 알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본사도 뉴욕을 거점으로 뉴욕의 소식과 세계 경제를 알리고 있다.

방송국이 모여있는 만큼, 방송 프로그램도 다양하며 할리우드를 견주한 영화인들의 영향도 뉴욕에서의 활동도 적지 않게 많다. “나 홀로 집”의 영화는 1857년에 건설된 도심지 공원 센츨럴 파크(Central Park)에서 촬영한 것이며 스파이더 맨, 아연 맨, 섹스 앤드 더 시티(Sex and the City) 등은 구체적인 뉴욕커들의 일상생활 속의 에피소드를 전개하며 뉴욕을 배경으로 촬영이 이루어졌다.

뉴욕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의 맨해튼은 모든 이들의 희망 사항 여행지이다. 전 세계의 전광판 광고가 모인 46번가와 브로드웨이 타임스퀘어의 화려함은 밤새 눈이 부시도록 광고 경쟁의 치열함 속에, 세계인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들의 눈을 자극한다. 더욱이 가장 인기 있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18세기 중반,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연극과 오페라에서 시작됐고 오늘날 브로드웨이의 뮤지컬은 뉴욕에서 꼭 봐야 할 것 중의 하나이다.

처음 뉴욕에 극장이 세워진 것은 1750년 배우 겸 매니저였던 월터 메레이와 토머스 킨이 280석의 극장으로 시작, 발라드 오페라를 상연하면서 시작했으며 윌리엄 헬렘의 극단들인 “베니스의 상인”이 더욱 인기를 끌며 1798년에서야 2,000명의 관객이 입장할 수 있는 공원 극장이 들어서면서 부흥되기 시작한다. 영국의 배우들로 시작한 뮤지컬의 흥행은 유니온 제곱-매디슨 스퀘어에서 옮겨져 지금의 타임스퀘어에서 최고의 음악가와 무용단, 연극배우들의 창작극을 아름다운 음악과 오페라를 통해 듣게 되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 하고 있으며, 매년 5,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뉴욕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관람하기 위해 찾아온다.



1910년부터는 세계의 경제성장과 함께 건축에서도 높은 마천루 붐이 불며 고층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크라이슬러 빌딩(319.4m),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381m), 세계무역센터(417m) 쌍둥이 빌딩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으나 안타깝게도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 테러로 붕괴되어 무려 3,000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났고 10년에 걸쳐 새로운 무역센터가 건설되었다. 2014년 11월 3일에 완공된 새 무역 센터는 새로 재건축되었으며 붕괴한 그자리에는 911테러 추모공원과 박물관이 생겨 입장해서 그날의 일



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

맨해튼의 엠파타운, 센트럴공원과 5번가에 있는 세계 3대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Metropolitan Museum of Art)은 5000년의 역사가 담긴 전 세계의 유물들과 미술품이 전시되어있으며, 무려 일주일 관람하기에도 부족하다. 이외에도 뉴욕은 현대 미술관, 자연사 박물관, 모마 미술 박물관 등 40여 개의 종류로 1년 패스로 발권하여 관람한다.

브로드웨이와 118가 모닝사이드 하이츠에는 1754년에 영국 왕 조지 2세의 칙허장에 의해 설립된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인 컬럼비아 대학교의 캠퍼스가 있으며 무려 101분의 노벨상 수상자와 3명의 미국 대통령을 배출시킨 최고의 명문대가 있으며, 북동부 14번가에 위치한 명문 뉴욕사립대학은 1831년 세워진 최상위권 대학이며 무려 38분의 노벨상을 배출하고 미국의원들의 출신들이 졸업한 대학교로서 정계 진출한 의원들이 많다.

뉴욕의 서부에 자리 잡고 있는 첼시 상점을 중심으로 뻗어있는 하이라인 공원은 1934년 위쪽 뉴욕(미디어킹 디스트릭)에서 미디 타운을 거쳐 아래 타운(허드슨)까지의 수백만 톤의 육류, 유제품 및 농수산물들을 운송하며 상업이 활발했으나, 교통편이 발달하여 대중교통이 늘고, 또한 많은 사고로 인해 1980년에 화물선을 폐쇄했다.

10여 년간의 사용하지 않은 폐허 건물과 철도의 야생식물들의 영감을 받아 비영리단체를 세우고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열어 지금의 자연공원 공공 공간으로 대중에게 공개됐다.

맨해튼의 아름다운 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중간쯤 지나다 보면 첼시 상점으로 내려와 예전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상업과 여러종류의 맛집을 통해 뉴욕의 음식들을 경험해보자.

뉴욕 하단을 벗어난 리버티섬에는 미국의 상징이자 세계를 비추는 불후의 명작 자유의 여신상, 이 세워진 곳이다. 1986년 10월28일 프랑스만이 미국의 100년 독립기념으로 헌정되었다. 1874년 프랑스 조각가 프레데락 오케스트 바르톨디의 설계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이미지에서 창작하여 1886년 완성되어(46m/225t) 무려 214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미국으로 수송되었고 198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됐다. 자유의여신상을 보기 위해 페리를 타거나 크루즈를 타서 이동할 수 있으며, 시간이 허락한다

면 쪽 리버티섬에 내려서 자유의여신 상 공원을 돌며 뉴욕의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자. 뉴욕의 패션과 예술의 메카인으로 자리 잡은 소호 거리는 유명디자이너들의 뷰티크와 잡화들이 모여있는 세계쇼핑 거리의 대표지이며, 미디 타운을 거슬러 올라가면 현대박물관과 라디오 음악 허허, 엠파이어 스테이드 빌딩, 매디슨 스퀘어, 락펠러 등의 주요 관광지가 있으며 32번가 6가 사이에는 한국의 거리 “K town”이 있어 외국인들의 관광명소가 되어 한국풍습과 각종 음식과/가게들을 통해 한류 풍의 인기가 날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뉴욕은 며칠만 계획하면서 전체를 경험하고 체험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여행 계획을 잡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볼 곳인지에 따라 간소히 즐길 수 있다. 숙소도 저가 요금인 뉴욕이나 부록클린보다는 맨해튼에 잡아야 렌트 차량 없이 경비 절감하며 보도 여행을 할 수 있으며, 2층버스인 하퍼 온 앤드 오프(Hoper On and Off/엘로)와 엘로택시를 이용하면 맨해튼의 중요 부분까지도 언어 선택으로 자유롭게 들 수 있고 원하는 종착역에 내리며, 재탑승할 수 있어 모든 관광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한다.



뉴욕은, 다민족이 모여 사용하는 언어만도 800개가 넘는다. 다민족의 문화와 음식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소호가에 있는 차이나타운의 덤썸..., 리틀 이태리의 정통 파스타와 피자..., 32번가 한국의 거리 김치점 등 여러 나라 음식이 맛갈스럽다.

12월의 뉴욕은 칼바람에 입술이 멍들

명예훈장 수상자 미야무라 히로시의 살아있는 역사

뉴멕시코 켈럽 출신의 한국전 참전 용사로 명예훈장을 받으신 히로시 미야무라씨가 지난 11월 29일 화요일에 9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故) 히로시 미야무라 씨를 애도하기 위해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뉴멕시코 주에서 게양되는 모든 국기는 반기(半旗: half-staff)로 게양할 것을 주지사는 명령했습니다.

광야의 소리는 미야무라의 생을 짧게나마 잘 소개하고 있는 다큐멘터리를 녹취하여 번역한 기사를 올림으로 그가 한국전쟁터에서 보여준 충성과 용기, 희생정신, 애국심 등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원본인 유튜브 “Living History of Medal of Honor Recipient Hiroshi Miyamura”에서 미야무라씨를 직접 만나 그분의 육성을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다큐멘터리 영상은 Congressional Medal of Honor Society 에서 제작한 것이며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youtu.be/RJbLhDSB2W4>

다큐멘터리는 2차대전 당시를 회고하는 미야무라의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미야무라〉

나는 군에 입대를 시도 했지만 입대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일본계 미국시민)는 당시 “적국의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4C에 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계 미국인 청년들 중 많은 수가 미국 전역의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수가 군에 지원 하고자 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미국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징집관은 말하기를 “지금 미국은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애국심을 증명해주어야 합니다, 전쟁의 대상이 당신의 조상인 일본인 이기 때문 입니다. 당신이 이 나라에 충성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설자〉

1944년 초, 18세의 미야무라 히로시는 드디어 자원입대를 하게 되었으며 배속된 ‘니세이 442 연대 전투단’은 유럽 전투에서 훈장을 많이 받은 미국 부대의 하나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히로시는 일본인 2세(Nisei)들로 구성된 제100보병 대대에 소속되게 되었는데 이 대대를 니세이 부대(二世部隊)라고도 불렀습니다.

것만 같았다, 빌딩과 빌딩 사이로 강바람이 뭉쳐 발조차 쭈뼛 얼어버릴 것만 같지만, 볼것 많고, 할 것 많은 뉴욕의 여행은 강력히 추천한다, 인생에 무료가 없듯이 여행도 무료가 절대 아니다, 특히 뉴욕은 전설의 도시만큼 미리

알고 떠나자. 알고 가면 인생의 쓴맛이 아닌 여행의 진짜 단맛을 알기엔 달달한 꿀맛인 것이다...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송은숙

제100보병대대에는 한국계 미국인 김영옥이 소대장으로 역시 많은 공을 세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유럽에서 돌아와 예비역으로 전역되었습니다.

(보충 자료: 미야무라는 예비역으로 전역하여 깰텁에서 자동차 수리공으로 살아가고 있던중 한국전에 소집받아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미야무라〉

1950년 우리가 전쟁중인 북한에 상륙했을 때는 11월 겨울이었고, 내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추운 혹한의 날씨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우리는 적절한 방한복이나 그와 유사한 것은 고사하고 필요한 음식도 제대로 공급 받지 못했습니다.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동쪽 장진호 부근의 산악지대를 북진해서 올라갔습니다.

사실 우리는 압록강을 볼수 있는 지점까지 올라갔고 중공군이 압록강 북쪽에 집결해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공군이 한국전에 참전해서 진격해오자 우리는 임진강 이남으로 후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시의 나는 기관총 분대장으로서 임진강 이남 우리가 방어선을 친 진지를 지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중공군의 병력에 비해 너무나 수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진지를 고수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설자〉

밤이 되자, 미야무라와 그의 부하들은 중국군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으며 진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냄비와 팽가리를 쿵쿵 두드리고 휘파람을 불면서 중공군이 고지로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있던중 소음이 갑자기 멈추더니 조명탄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야

무라와 그의 병사는 그들의 진지를 공



격하는 공산군 병사들에게 30구경 기관총 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공산군 병사들의 물결이 그들의 진지를 덮쳤을 때 미야무라는 기관총 사수 참호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와 그들을 향해 돌격하여 총검과 소총으로 백병전을 벌여 10명을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참호로 돌아와서 기관총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그가 쓰던 기관총이 작동을 멈추자 작동하는 기관총으로 바꾸어 가며 사격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탄환이 거의 다떨어지자 더 이상 진지의 고수가 어렵다는것을 알게되어 부하들에게 철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야무라〉

나는 내 부하 전우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혼자서 기관총 사격으로 커버했습니다. 드디어 후방에 있는 우리 포병들이 지원사격하는 포탄(인탄)이 내 위치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나의 부하 병사들이 모두 무사히 하산하여 부대에 합류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투를 그만두고 고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으나 적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총검으로 싸우던중 적 병사가 수류탄을 내게 던졌고 나는 이를 다시 차버림으로 살아날 수 있었지만 그때 내가 파편에 맞아 다쳤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험한 산을 기어 내려왔습니다.

고지를 내려와 산기슭에 이르렀을 때 나는 철조망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철

조망 밑으로 빠져 나갈려던 중 군인들의 발자국소리가 들렸고, 많은 발자국소리가 내가 숨어있는 철조망 오른쪽으로 지나 갔습니다. 하지만 난 꿈쩍하지않고 누워 있어 들키지 않았고 중공군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나는 이제 살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큰 목소리 영어로 일어나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You're my prisoner!"

〈해설자〉

포로가 된 미야무라는 그의 동료 포로와 함께 북한의 추운 기온과 험준한 산악 지형을 통과하는 가혹한 강행군을 한 달 동안 계속한 끝에 포로수용소로 옮겨져 27개월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2년 넘게 계속된 포로생활중에 뉴멕시코에 있는 아내는 남편이 작전중 실종되었다는 통보만 받았을 뿐, 생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이유는 공산당 군대가 포로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53년 여름, 판문점에서 포로석방이 되어 미야무라는 미군 당국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자유의 마을을 통과하기 위해 간략한 브리핑을 받고 언론을 만나도록 안내되었는데 그곳 회견장에 들어가니 랄프 오스본 준장이 그를 최고의 귀빈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미야무라는 아직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미야무라〉

우리 쪽으로 건너갔는데, 나와 기자회견하려고 기다리는 기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그 기자 회견실에 들어갔을 때 우리 사단의 사단장이 테이



교회/교계소식

블에 서 있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자네를 왜 여기 불렀는지 알겠나?” 라고 질문했습니다. 나는 영문을 모르는 지라 “모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단장은 “자네가 명예 훈장을 받았기 때문일세.”라고 말했습니다. 이말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뭐라고요?(What?)” 뿐이었습니다.

적어도 바람에 나부끼는 성조기를 보기 전까진 모르고 있었던...

나는 바람에 나부끼는 성조기를 보는 순간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겸손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공을 세운 자격이 있는 많은 전우들이 어떤 종류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잊혀지고 있습니다. 메달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많은 군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희생한 사실에 대해 온 국민이 잘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미야무라 하사 (자료사진)

(녹취/번역: 이경화)

관련기사 더보기:

“한국전 참전용사 히로시 H. 미야무라는 어떤 인물인가?”, 광야의 소리 2016.7/8, Page 9

2023년 신년사

윤성열

앨버커키한미침례교회
담임목사



오늘도 뉴멕시코를 살아가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은 계묘년으로 검은 토끼의 해라 하는데 검은 색은 지혜를 말하고, 토끼는 다산, 평화, 안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를 담아 지혜롭고, 평화로우며, 안정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2023년이 되길 희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쉬지 않고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계획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하시는 일과 사업에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한 나라 미국을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구두 수선공이었던 위대한 영국의 침례교 선교사 윌리엄 캐리(1761-1834)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Attempt Great Things For God!)”는 놀라운 비전의 메시지를 던져 잠자던 영국을 뒤흔들었는데 여러분 모두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한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일찌기 이곳에 이민오셔서 땀

과 수고와 눈물로 선구자적인 삶을 살아내신 존귀하신 우리 어버이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신 그분들은 위대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들의 경륜과 지혜는 도서관과 같은 것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레위기 19장 32절)

오늘도 뉴멕시코에서 살아가시는 존귀하신 동포 여러분들에게 2023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앨버커키한미침례교회 윤성열 목사 2023년 전반기 선교사역 소식

우크라이나 및 폴란드 지역

일시: 1월 9일 -1월 21일(2주간)

사역: 우크라이나 KYIV지역 난민 캠프 방문 현지 선교사와 구호 사역 (남침례교 해외선교부 IMB 및 Baptist Convention of New Mexico와 협동 사역)

중미 쿠바 지역

일시: 2월 13일 -25일(2주간)

사역: 쿠바 한인 이민 후손들을 위한 신학교 교육 및 선교 사역 (영어/스페인어)

중국 및 동남아 지역: 3주간(TBA)

일시: 5월-6월(영어/중국어)

강림절 4번째 주일 대표 기도



염희식
장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세상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선한 뜻을 따라, 오늘도 쉬지 않으시
고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주간에도 한결 같으신 은혜 안
에 두시고 거룩한 예배에 자리로 인
도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 찬양 드립
니다.

사랑에 하나님! 혼탁한 세대에 살면
서 지은죄로 얼룩진 주에 백성들에게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오니 죄사하여
주 시옵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고,
거룩한 예배, 거룩한예배자로 세워 주
시길 기원합니다.

부디 주님에 성전에 은혜충만하여
성령님에 숨결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하나님 교회들에게 마련해주
신 대강절 4번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설렘으로 준비하며 기다리오니,
성령님께서 많이 주시는 특별하신 은
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에 마음을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
기를 소원합니다.

한밤중에 양치는 목동들과 함께 천사
들의 노래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소식을 기다리던 동방박사들과
같이 찬란한 별빛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길목 작은마을 베들레헬
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육축이 잠든 마구간 말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 곁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두 손 뿜은 성모 마리아와 요셉의 거
룩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이곳을 둘러 보아도 보암직한
것도 먹음직한것도 탐 할만한 것이 없
는 초라한 작은마을 거칠고 차가운 마
구간에 말구이.

이곳에 오신 주님!
이곳에서 새로운 하나님 역사를 깨닫
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천사에 노래는 권력자가 아
닌 목동들에게, 찬란한 영광에 별빛
은 대제사장도 율법 학자도 아닌 기다
리고 준비하던 동방에 박사들에게 나
타나심을 깨닫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
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새역사이고 새복음에
시작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
엘 되시어서 이 땅에 에서 섬김과 겸
손의 본을 보여주시고 세상 죄 다 감
당하신 주님 그리고 곧 다시 오시겠다
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
시오니 항상 기다리고 준비하도록 우
리에 마음을 지켜 주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다사다난하고, 혼돈중에 한해였음을
봅니다.

특별히 탐욕으로 가득한 소수 러시
아 권력자들에 침략을 받은 우크라
이나, 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고, 상처
를 입고,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추위
속에 유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
님! 공의의 하나님!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의 방법으로 속

히 전쟁을 끝내 주시옵소서. 다시 정
든 땅으로 정든 집으로 인도 하여 주시
옵소서!

그리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으로 부터
새소망과새 힘으로 새 출발 하도록 인
도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알버커키 한인연합감
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2022년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려주
신 복을 세어 보면서 무한 감사 찬양
드립니다.

코비드 19 유행병으로 힘든 세월 중에
도 은혜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주
님의 교회를 섬기고 믿음 지키게 하심
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드
리고 또한 자녀들 지켜주심을 감사드
립니다. 저희의 직장와 사업장에 복 내
려주시고 항상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에 귀한 말씀
의 종을 세우시고 하늘에 생명수를 끊
임없이 내려주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영혼이 갈하지 않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있게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 항상 그러하듯이 성령의 장중에
불드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지켜주
소서.

주님의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맡
아 조화롭게 나누며 기쁨으로충성하
는 모든 재직들에게 감사하오며 충성
된 종들에게 칭찬하여 주시고 은혜 내
려 주시옵소서.

<28 페이지로 계속>

수필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 보내면서

이동미

집사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1주일 정도 치료를 받고 다음 수요일에 퇴원하실 거라는 얘기도 들었다. 비행기표를 1월에 가는 거로 끊어 두었다.

근데 퇴원을 앞둔 아버지께서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중환자실로 옮기셨댔다. 갑자기 바빠졌다. 남동생이 빨리 오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급하게 다음날 출발하는 표로 바꿨다. 인터넷은 나에게 미로 같아서 늘 해매는 처지라 아이들이 도와줬다.

그 밤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걱정이 되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이 너무 굳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 부드러운 아버지의 얼굴이면 좋을 텐데.

아버지는 늘 예수 믿으시라는 나의 말을 거부하셨었다. 그런 말 할 거면 전화도 편지도 하지 말라고 하셨었다. 이 몇 년 동안에는 귀가 어두워져서 전화 통화도 어려웠었다.

도착하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갔다. 형

제들에 의해서 벌써 모든 장례 절차가 잘 준비돼 있었다.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다. 눈물이 안 나왔다. 큰오빠가, 비행기에서 너무 울어서 이제는 눈물이 안 나오나 보다고 말했다. 마음이 무거웠다. 형제들이 아버지 입관을 하지 않고, 나를 기다려 주고 있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아버지의 굳은 얼굴을 볼까 봐 두려웠다.

큰언니가 말했다. “아버지 편히 가셨다. 잠자듯이 가셨다.”

큰오빠가 말했다. “아버지 얼굴 편안하시더라.” 그 말이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 비행기 안에서 염려하던 것에 대면할 용기가 생겼다. 아버지의 얼굴이 부드러우셨다.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의 말도 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유교 집안의 몇 대째 내려오는 장손이셨다. 그래서 집안에는 늘 제사가 있었고, 엄마는 손 마를 날이 없이 고생하셨다.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으로 42년을 봉직하셨다. 늘 깨끗한 양복 차림으로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쓰셨었다. 방학 때면 반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모습도 자주 보았다. 딸, 아들 구분을 하셨지만, 딸 들도 대학 공부까지는 해야 한다며 나를 서울로 유학을 보내셔서 공부하게 뒷받침해 주셨다. 그 당시 여고 졸업반 때, 많이 내 친구들은 대학을 못 갔었다.

아버지께서 구원받으셨을까?

장례를 마치고 큰언니와 아버지의 집을 쟁겼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듣고 만나면서 편안해졌다. 입관 때 보였던 아버지의 얼굴이 편안하셨던 게 이런 이유였구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위에서 기도해 주는 게 참 귀하고 중요한 일이구나. 구원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사랑하는 아버지, 절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미국에 와서까지 일할 수 있게 공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요.

<27 페이지에서 계속>

강림절 4번째 주일 대표기도

주일학교 어린이들에 영적 교육성장을 말씀으로 담당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지식과 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 경건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팀 모든 성도들의 수

고에 감사하며 더욱 거룩함으로 소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점심만찬과 토요 새벽 조찬을 위해 기쁨으로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는 성도님들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기다립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간절한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을 장중에 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마다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Korean Churches
in NM



교회에서 원하시는
Icon용 사진을 보내주
시면 광고에 추가해 드
립니다. 보내실 곳:
voiceofnm@gmail.com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김민순 목사 (505)975-0322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예배 후 점심식사 교제)
어린이주일학교 시간: 오후
1:00 pm
토요새벽예배 시간: 7:00 a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교회 웹사이트: www.galileeabq.
com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PreK/K-3/4-7) 10:00 am
(Sunday)



중/고등부 / 주일학교 예배 11:00 (Sunday)
새벽기도회 6:00 am (Tue-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온라인예배방영: www.youtube.com/KUMC_Online
페이스북: www.facebook.com/kumcabq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새벽예배및 기도회: 5:30am(mon-sat)
금요일예배및 기도회: 7:30pm-10p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88005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
Fri)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505)699-4775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사목회장:김지수 전례부장:장경림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 (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기도회: (코로나로 인해 재 구성 중)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 (505)-503-9846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클로비스 한인 교회 (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1:45pm
수요모임 11:30am
아침기도회: 7:00am(월, 화, 목, 금)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거무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건축/페인트 Painting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단요가 Dahn Yoga 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 리커스토어 Liquors 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201 Third St. NW Suit 1300 Albuquerque NM 87102 (505)888-1335 jroh@cuddymccarthy.com 부동산 Realtors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세탁소 Dry Cleaners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식당 Restarant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스시벅스(SUSHIBUCKS) 2106 Central Ave. SE Ste.A ABQ (505)243-8089 Asian Pear 8101 San Pedro Dr.NE, D ABQ (505)766-9405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Korean BBQ & Sushi 4214 Central SE ABQ (505-797-8000) K Style Kitchen 6001 Winter Haven rd.G NW, ABQ NM (505-503-8699)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Tamashi Japanese 6400 Holly Ave. NE ABQ NM87113 (505-717-2457) 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AmericaSouthwest.com 미국 남서부 지역 여행안내 사이트입니다.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자동차정비 Auto Repair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웹사이트:thegaragenm.com 주택용자 Loan Officer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중재서비스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kumcABQ.com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홈페이지 QR Code 입니다	NAPA Family Dental Dr. 윤자정 10820 Comanche Rd, NE Albuquerque, NM 87111 ph)505-323-7700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 (505) 271-2000 한의사 Acupuncture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호텔 Hotel The Ambassador Inn (조영자) 1520 Candelaria NE ABQ NM 87107 505-345-2547 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Voice.kumcabq.com 스마트폰에서 QR code Scan 하셔서 광야의 소리를 만나 보세요.
--	---	---	--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과 Dentist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미장원 Hair Salon 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	산타페 Santa Fe 손톱미용 Nails 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Kohnami Japanese Cuisine 313 S. Guadalupe St. Santa Fe (505-470-1561)Hee Joo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리오란초 Rio Rancho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로스루나스/벨렌/버나리요/보스키팜 Bernalillo/Belen/Bosque Farms'Los Lunas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식당 Restaurant 박성희/신숙희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클로비스 Clovis 식당 Restaurant Bokka 레스토랑(한식) (박창문, 박미란) 1708 Prince St. Clovis, NM 88101 (575)-763-2262	치과 Dentist KidsKare PC Family Dentists 600 Texas St. 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부 (575)-762-1900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화밍톤 Farmington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광야의 소리

(증보판)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23년 1/2월호 발행일 : 2023. 1. 7.

증보판(p27-28 Updated):2023.1.10.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부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광고를 통한 후원에 관해서는 voiceofnm@gmail.com으로 또는
(505)275-9021(광고담당:신옥주) 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1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앨버커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505)352-5152
영업시간: M-F 7:00am-6:00pm (토 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생명보험 : 사랑하는 가정경제를 지키는 버팀목
롱텀케어 : 양로병원과 간병을 지원하는 플랜
IRA : 안전과 수익을 함께 보장하는 지수형이자


HAN JU LEE (financial professional)
CA Lic.#0K41143 / NM Lic.#17684619
213.321.8787
carlitos3840@gmail.com

HANMI
KOREAN-CHINESE FUSION
Business Hours
Wed - Mon 11am ~ 3pm / 4:30pm ~ 9pm
Tuesday Closed
2120 Juan Tabo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Tel: (505) 717-1287

R1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김영신/부동산중개인
Yong Shin Kim
505.321.7695
yongshinkim001@gmail.com
www.R1newmexico.com 505.883.9400